

Siba에 뜨거운 관심을

대한제과협회는 지난 83년부터 2년에 한번씩 서울국제빵과자전(Siba)을 개최해 오고 있다. 그동안 이 행사를 통해 우리 업계는 많은 기술적인 발전을 했고, Siba는 이제 대내외를 통해서도 베이커리업계 전문 전시회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기술인들의 기술 수준 향상과 베이커리업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Siba는 전국 기술인들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는 전국빵·과자경진대회와 장비, 원부재료, 포장재 등 베이커리산업과 관련된 연관업체들이 참가하는 산업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전을 동반 개최하는 것은 행사를 치르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발전 기여하는 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빵·과자경진대회는 업계의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협회의 경연대회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 시킴으로써 하이박 경연대회, 호두제품 경연대회, 크림치즈제품 경연대회 등을 무난히 치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기반이 되었다.

Siba는 질과 양적인 면에서 크게 발전을 했다. 특히 산업전은 회를 거듭할수록 업체들의 아이템도 훨씬 다양해 졌고, 관련산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이다. 관련 업체에겐 이 행사가 자사의 제품을 가장 적절히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아쉬운 점은 행사의 본질인 전국빵·과자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기술인들의 관심이 최근 들어서서는 작품의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수치로 따져 본다면 작품수만 해도 93년에는 503점, 95년에 459점, 97년은 335점이 출품돼 날이 갈수록 제과인들의 행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 들고 있고, 9개부문 13개 분야중에서 특히 공예부문이나 초콜릿부문 등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적인 작품수준이 오히려 예년보다 못하다는 평이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Siba의 중요성이나 목적으로 봐서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질도 질이지만 참가 작품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행사에 대한 제과인들의 관심이 자꾸 멀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업계의 기술발전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제9회 Siba가 다음달로 다가왔다. 참가에 뜻이 있는 기술인들은 각 지회, 지부로 이달 20일까지 작품을 접수해야 한다. 물론 요즘의 상황이 인력문제와 매출부진 등 당장 발등의 불부터 꺼야만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멀리 보는 안목으로 실력을 갈고 닦지 않으면 우리는 베이커리시장을 넘보는 각종 경쟁업종에 어쩔 수 없이 밀리게 될 것이다.

Siba에 대한 제과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바라는 바이다. **이계**